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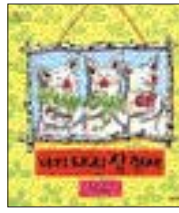
어린이 책꽂이

▲지식플러스-자나깨나 자연재해



(제6편)= 과학·자연·수학·역사·예술·사회 등 교과와 관련된 지식들을 재미있게 풀어쓴 학습만화. 지진과 쓰나미, 화산, 태풍, 홍수, 지구온난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연재해를 다루고 있다. <주니어 김영사·7천500원>

▲아기돼지 삼형제=어린이들에게 잘 알려진 '아기돼지 삼형제'를 재구성한 동화책으로 막내 돼지의 반격이 시작되는 뒷부분은 유쾌한 웃음을 준다. 돼지들을 잡아먹으려는 늑대가 거꾸로 돼지의 저녁감이 되는 결말이 통쾌하게 그려져 있다. <시공주니어·8천500원>



▲장 앙리 뒤낭(제1편)=내 아이 노벨상 수상자로 키우기 시리즈로, 보다 나은 문명사회를 위해 투쟁해온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의 숭고한 삶을 담았다. 국제적십자를 탄생시킨 박애정신의 화산 장 앙리 뒤낭의 이야기가 감동을 준다. <현문 미디어·1만원>

▲심술쟁이 내동생 싸게 팔아요=알미온 동생과 늘 티격태격하는 오빠의 일상을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유쾌하게 그렸다. 귀찮은 동생을 낚신 사람에게 60달러에 팔아버린 오빠가 다시 되찾기까지의 이야기가 따뜻한 웃음과 공감을 선사한다. <어린이 작가정신·7천500원>



▲소크라테스의 수첩을 찾아라=철학의 고전을 어린이들에게 동화 형식을 재미있게 전달한 시리즈. 호기심 많은 테오와 새침떼기 도도가 엘크바사의 철학탐험대가 되어 시간열차를 타고 과거의 소크라테스를 찾아간다. <살림 어린이·9천800원>

▲꿈-당신을 변화시키는... 카스트 지음



거의 매일 접하면서 도대체 그 정체를 속 시원히 알기 힘든 것이 꿈이다. 꿈이란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용 심리학의 권위자 제라나 카스트가 '꿈-당신을 변화시키는 무의식의 힘'을 통해 꿈의 비밀을 파헤쳤다. "무의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여겨진 꿈은 프로이트 등에 의해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왔고, 20세기 들어 뇌과학과 신경과학의 발전으로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저자는 고대 길가메시에서 응까지 흥미로운 꿈의 역사를 되짚고, '꿈을 왜 꾸는가'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을 소개한다. 저자에 따르면 꿈을 위해 "증가된 뇌자극 상태를 잠에서 불러일으키는" 메커니즘이 작동된다. 꿈의 내용은 또 어떤가. 저자는 꿈이 신경을 가로지르고 무의식을 확장해 이야기를 만들어낸다고 말한다. 그래서 꿈을 망각하지 않고 자신의 존재 안에 끌어안아 자신을 확장하는 '꿈과의 대화'를 나누라고 강조한다. <프론티어·1만3천800원>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지도는 한장의 예술품이자 역사책이다

지도 박물관 존 클라크 외 지음



전경 영화를 보면 수뇌부가 커다란 '지도'를 펼쳐 놓고 작전 계획을 짜는 익숙한 모습이 나온다. 각종 선거가 끝나면 신문이나 방송은 각 정당에 승리를 다양한 색깔의 '지도'로 표시한다. 복잡한 지하철 노선도, 하늘의 신비한 이야기를 풀어놓은 천체도 등 지도는 다양한 모습으로 인류와 대면해 왔다. 작가 존 클라크 등 7명의 전문가가 쓴 '지도 박물관'은 지리적 정보만을 담은 '그림'을 넘어 세계관, 철학, 상상력을 담보, '문명의 축소판' '한장 짜리 역사책'으로도 불려온 '지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담은 책이다.

책을 담아내고 사람들 마음 속의 유량과 동경을 자극한다"고 밝혔다.

책은 '지도의 탄생' '탐험의 시대' 등 모두 6개의 전 시실로 나눠 역사상 가장 주목할 100개의 지도를 소개한다.

재미있게 읽히는 부분은 4전시실의 '군사지도'와 6전시실의 '관타지와 풍자, 허구가 담긴 지도'

역사상 주목할 100개 지도

인문사회학적 관점서 소개



여왕을 묘사한 영국 캐리커처 지도(왼쪽)와 세계 최초의 바다지도인 포르투갈노 해도.



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군사지도는 매우 흥미롭고,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가능케 했던 오마하 해변의 세세한 지도들, 연합군을 분쇄할 수 있었음에도 갑작스레 전화로 '공격 중지 명령'을 내린 히틀러의 결단을 둘러싼 수수께끼의 열쇠가 된 지도 등 다채로운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특히 '팝아트'의 선구자 앤디워홀이 1986년에 제작한, 소련 미사일기지를 보여주는 '군사 지도'는 전쟁에 대한 풍자와 경멸을 담은 예술품이다.

6전시실의 지도는 매우 흥미롭다. 여왕을 담은 영국 지도, 꿈을 담은 러시아 지도, 춤추는 귀부인 모습인 독일 지도 등 재미있는 캐리커처 지도를 만날 수 있다.

또 '반지의 제왕'과 '호빗'의 톨킨이 만든 상상의 세계인 '중간계'를 표현한 지도와 잃어버린 제국 '이틀란스 지도'는 판타지를 느끼게 해준다. 지도의 역사에 관심이 많다면 제1 전시실 '지도의 탄생', 제2 전시실 '지도 제작사의 놀라운 발전', 제3 전시실 '탐험의 시대' 등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슬람학자들이 만든 최초의 지도를 비롯해 지도제작의 장인으로 불리는 페르투스 카에리우스, 콜롬버스와 스콧선장 등 유명 탐험가와 지도에 얽힌 에피소드, 과학과 미학의 아름다운 조화로 불리는 '천체도'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지도'는 당시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생생한 자료다. 중세의 플레라 지도는 중세인 수천명을 살렸고, 마크 트웨인은 '통계'를 거짓말의 한 유형이라고 일갈했지만 다양한 통계지도는 지도가 '사회'를 어떻게 반영하는 지 잘 보여준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화려하고 뛰어난 지도 도판이다. 책에 수록된 200장의 지도는 그 자체로 완벽한 예술성을 보여주고 있다.

<웅진지식하우스·2만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작가와 함께하는 책임기

김영갑 '그 섬에 내가 있었네'

어느 시인은 아름다움에 허기져서 시를 쓴다고 했다. 그러나 아름다움에 허기진 자가 어디 시인뿐이라. 진정한 예술가는 누구나 아름다움에 허기진 자가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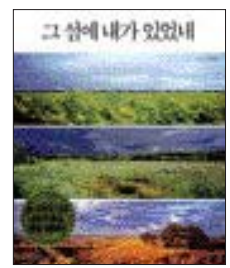
"사진을 찍다가 순교하겠다. 여한 없이 사진을 찍다가 웃으며 죽고 싶다"고 했던 사진작가 김영갑! 그는 세속적 삶을 다 버리고 오직 제주의 사진을 찍는 데만 매달려 평생을 보낸 '미(美)의 수도자'였다.

그의 사진 에세이집 '그 섬에 내가 있었네'(휴먼앤북스)는 그가 20여 년 동안 '섬에 홀려 사진에 미쳐' 살아온 삶과 작품과 투병의 기록이다. 그는 홀로 사진을 찍고 작업을 하는 일을 수행이라 여겼으며, 남이 인정하던 말든 사진을 즐겼고, 그랬기에 20년이라는 세월동안 졸골 제주를 담을 수 있었다.

빈센트 반 고흐와 고산자 김정호를 통해 고희와 소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았다는 그는 끊임없이 자신과 대화하면서 마음을 다스렸다. 밥 먹을 돈을 아껴 필름과 인화지를 샀고, 작업을 하다 배가 고프면 들만에 자라는 무와 고구마로 허기를 달았다. 절대 빈곤과 절대 고통의 삶 속에서 영혼꽃처럼 피워낸 이야기와 사진 작품들은 우리를 외경심의 세계로 이끈다.

매서운 겨울바람 속에 피어난 너도바람꽃처럼, 고통의 끝에서 무사히 봄을 맞을 수 있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써낸 그

사진은 '삼시간의 황홀'이다



의 글과 사진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비의와 신비들로 득실거리고, 자연의 신비를 읽어낸 깨달은 자의 잠언들로 가득하다.

그가 사진에 붙잡아두려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있는 그대로의 풍경이 아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들간의 빛과 바람, 구름, 비, 안개다. 최고로 황홀한 순간을 포착해 '삼시간의 황홀'을 보여 준다. 그의 사진에는 찰나의 시간과 역경의 시간이 함께 머문다. 바람에 이리저리는 유채꽃과 무릇의 미세한 움직임, 그리고 풀단 사이로 비치는 붉게 물든 저녁노을의 황홀함이 살아 숨 쉰다.

그 사진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바람의 움직임에 찬찬히 눈 돌리게 하고 자연이 전하는 소리에 살며시 귀 기울이도록 하는 묘한 힘을 지녔다. 그의 사진은 사진이 아니라 빛과 시간이 함께 빛어낸 한 편의 시(詩)다. 바로 그가 말한 '삼시간의 황홀'이다. 그것들은 은은하고 생생하거나, 붉거나 뜨겁고, 무겁고 아득하며, 휘황하고 가물거물하다.

그의 글과 그림 속을 산책하는 동안 우리는 머릿속을 서늘하게 하는 깨달은 자의 잠언을 듣게 되고, 바람과 빛의 노래가 변주하는 영상 속에서 은은한 황홀을 맛볼 것이다. 그러다 문득, 아득해지는 황홀한 순간 뒤에 이어지는 찬란한 슬픔을 만나리라.

혹, 제주에 여행할 기회가 있다면 그가 생전에 병든 몸으로 남제주군 성산읍 삼달리에 폐교를 임대하여 꾸며놓은 '김영갑 갤러리 무모악'에 들려보시라. 그가 이 지상에 남긴 '빛과 바람의 초대장' 속에는 "눈, 비, 안개 그리고 바람의 환상곡"과 "바람에 실려 보낸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 것이다. 부디 '삼시간의 황홀'이 '은은한 황홀'로 변하는 기적을 만날 수 있길..

김경운
(시인)



'무의식으로 가는 지름길' 꿈의 모든것

처형의 역사에 숨겨진 인간의 광기 조명

꿈-당신을 변화시키는... 카스트 지음



거의 매일 접하면서 도대체 그 정체를 속 시원히 알기 힘든 것이 꿈이다. 꿈이란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용 심리학의 권위자 제라나 카스트가 '꿈-당신을 변화시키는 무의식의 힘'을 통해 꿈의 비밀을 파헤쳤다. "무의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여겨진 꿈은 프로이트 등에 의해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왔고, 20세기 들어 뇌과학과 신경과학의 발전으로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저자는 고대 길가메시에서 응까지 흥미로운 꿈의 역사를 되짚고, '꿈을 왜 꾸는가'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을 소개한다. 저자에 따르면 꿈을 위해 "증가된 뇌자극 상태를 잠에서 불러일으키는" 메커니즘이 작동된다.

꿈의 내용은 또 어떤가. 저자는 꿈이 신경을 가로지르고 무의식을 확장해 이야기를 만들어낸다고 말한다. 그래서 꿈을 망각하지 않고 자신의 존재 안에 끌어안아 자신을 확장하는 '꿈과의 대화'를 나누라고 강조한다.

<프론티어·1만3천800원>

무시무시한 처형대... 미사오 지음



'알고보면 무시무시한 그림동화'의 작가 기류 미사오가 처형의 역사에 숨겨진 인간의 광기와 잔인성을 조명했다.

'무시무시한 처형대 세계사'는 고대 로마, 마녀재판, 런던탑, 파리 처형광장 등 4가지 테마로 나누어 처형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한다.

로마의 황제들이 풀로세움에 대중을 모아놓고 처형이나 검투사 시합을 벌였던 배경과 시대 상황을 설명하고 가학적인 인간의 심리를 고발한다. 마녀재판의 희생자들은 당시 유럽을 짓누르던 흑사병, 인플레이션 등에 대한 대중의 불안 해소 창구이기도 했다.

저자는 '런던탑의 에피소드에서 드러나는, 공존하는 인간의 지성과 야만성, 프랑스 처형광장에서 깨닫게 되는 인간의 존엄에 대한 대중의 모독' 등을 결코 남의 일로 바서는 안 되는 이유는 이 모든 비극을 만들어 낸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자음과모음·1만5천원>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태양' (Sun)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person and text: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난방', '태양' 열적외선, '태양' 난방이 책임집니다. (주)태양상사 TEL: 0621282-0101

Advertisement for a real estate or service company with text: '누구나 선택 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당신을 고희 노동 최고의 VIP로 모십니다. 34+48'.